

황혼이혼이 어쩔다는 것입니까

오재호/한국부부문화 연구원장, KBS-2R "밤을 잊은 그대에게" MC

오 줌은 50세가 넘어 이혼법정에 나타나면 황혼이혼이란 딱지가 붙습니다. '다 늙은 마당에 이혼이 다 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나이가 2년만 더 있으면 일흔 살이 됩니다. 이 사람하고는 50년이 더 넘게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삼남삼녀를 두었는데 모조리 지 어미하고만 속 뚫거리고 지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왜 삼니까?" 물론 몇 가지 사유가 더 있어서 이혼이 성사되긴 했으나 할아버지의 항변에는 뭔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지 어미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데 평생을 시장 바닥을 헤매면서 돈 벌어다 바친 난 뭐야? 이전 살만큼 살고 있으니까 늙은 늙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인데 좋다고 도장 찍자고!"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낀 나머지 단식투쟁을 하거나, 투정을 부리거나 또는 "죽겠다"고 하거나, "양로원에 보내달라"고 하고 가끔은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공연히 손자손녀를 괴롭힐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저희끼리 썩떡거리릴 때입니다. 노인들도 자식한테 붙어서 먹고살고 있다는 것을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집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들끼리만 썩떡거리고 넘어가면 대화공간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느낌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둘째, 용돈에 대한 반응 때문입니다. 평생을 써왔던 돈을 하루아침에 못쓴다고 가정해보십시오.

문제는 용돈 자체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경제적 행동반경이 축소된 것에 대한 반발이 나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외출을 말할 땐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외출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허락하면 아무 곳이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금 당신의 외출을 가로막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 열불이 난다고 했을 것입니다. 넷째, 몸이 아플 때입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게다가 입맛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약 한 첩 지어주지 않습니다.

다섯째, 집을 왕래할 때 인사가 전혀 없을 때입니다. 주말인데도 자식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주일 전에 해외출장을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노인단독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혼추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전문화된

이유도 있었지만 부모의 잘못된 혼인생활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못 모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녀성비 문제까지도 역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큰소리치고 사는 사내아이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사내아이만 낳다보니 내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일본처럼 우리도 신부를 동남아에서 수입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아동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잘못 살면 문제의 부모가 되고 마침내는 법정에서 황혼이혼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